오늘 요단강을 건너감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유임물이 아직 안왔죠?

오면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8절...

여호수아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 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배울 말씀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에 대해서 교제해보겠는데요. 이 단원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마땅히 홍해바다를 건넌 너무나 큰 이적이 있기 때문에 홍해에 비해서 요단강 건넌 것은 너무나 쎈거죠.

홍해를 건넜던 것과 요단을 건넜던 것에 대한 교훈이 다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해줄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겠구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전도를 한다.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이고, 요 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 그 차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했을 때 도와주신다, 승리하심이 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컷다. 왜 그 동안 오면서 큰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홍해바다 사건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 그렇게 돼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눈으로 보았더니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찮가지로 그 이후에는 믿음이 좀 생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법궤를 메고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여기에서는 주는 교훈이 있는거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면 모든게 더해진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와가 하나님앞에 나오게 되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돌 열두 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 인에게는 직접적인 생활에 달려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찬송가 있잖아요. "몇일 후 몇일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강이 이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인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뵙게 되는

데, 이는 죽음의 경계를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을 보면 민수기 2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 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 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록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4절입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재할 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모세가 건너지 못하고 죽고, 그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꾀나 오랬동안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랬동안 준비된 사람이다.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많은 싸움을 했었고, 실제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 님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교회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렇

잖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무엇일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일군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보는게 뭐냐면...

그분이... 착하냐? 온유한 분이냐?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요한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보시는게...어느 목사님 한테 들었는데요. 이요한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게 무엇이냐면 그 분이 착하 냐?

교회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자 들은 일단 성품이 온유하다.

모세가 마음 고생한다. 여호수아가 ...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는 것이 봉사 처음할 때 그분이 정말 온유한 마음이라면 주 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판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그랬던거 같아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랬다. 여호수아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파한다. 실제로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했다.

그리고 소괄호 3번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이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거에요.(10:59)

말씀을 계속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계속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던거 같아요.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령충만한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사실은 정상적인 거잖아요.

말씀가운데 교제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충만한 거죠.

내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더욱 더 말씀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 이다"

다 명하신 것은 다 행한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앞에 쓰임을 받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의 띄워준 등기부등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는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은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보십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순서죠. 그죠?

우리한테도 마찮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던데로.., 모세는 약속을 받았어요. 주님께...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 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리라"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가 위험하죠.

내가 신앙생활 외롭다라고 생각할때가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거에요.

그게 교만함 아니면 아주 무뎌진 거거든요. 내가 외로울 수가 없죠. 형제자매님

들이 나를 몰라서 외롭냐? 그거는 잘못된 거에요.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서운하거나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반드시 벗어난거다.

내가 굉장히 교만해져있다.

그게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거에요.

외로울 수가 없죠. 우리는주님이 계시는데 외로울 수가 없죠. 더욱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듯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주 님오시는 날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는게 중요하죠.(15:43)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되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점령하기위해서는 건너야할 강이 요단강이었잖아요.

강을 건너기 전에 요구하시는게 뭐냐면....성결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앞에 성결해라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라"라고 되어있죠.

스스로 성결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자기 마음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앞에 스스로 성결케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운데 있지만 봉사하고 있지만 주위에서 나를 보는거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거 하고는 차이가 많죠.

교회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스스로 성결케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판단을 못해요. 외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정말 판단을 못해요.

저분이 조금 거스리는 행동을 해도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간절할 수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이러분이 계시든, 저런분이 계시든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보다 스스로 하나님앞에서 성결케된 분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맡은일이 있으니까 해야할 건 해야하죠.

근데 큰일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게 "성결하라"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사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 니니라 하시니"

발은 씻는데... 매일 씻잖아요. 매일... 일부분만 씻는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씻는 게 맞는거에요.

우리도 서로의 교제 가운데서 매일 서로를 씻겨주고 말씀 가운데서 씻음을 받는 거에요.

바로 이것이 성결한 조건이 되는거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한테 요구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처음에 뭐에요 처음이 영,,,,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

세 가지를 다 깨끗하길 원하시는데 그다음 제일 앞에 있는게 영...

하나님앞에서 정말 말씀가운데 후회 없는 선택....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규례든가 이런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정말 큰 병이니까 요구 하시고...

혼, 마음, 생각...마음으로도 하나님앞에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재 우리의 몸...우리의 몸도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시는거에요.

물론 어떤사람한테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앞에 합당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젊은데 건강이 안따라주면은 봉사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지키는 것도 힘을 많이 투자하셔야 할거 같아요.

몸이 아프면 다 귀찮잖아요. 따라주지 않고...

어떤 분은 몸은 이십대인데, 실질적은 마음은...나이도 이십대인데 몸 상태를 보니까 40대에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다고 했습니 다

하나님앞에 큰일 또는 작은 일을 맡길 때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성결하는 것 성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라 와닿았어요. 스스로 성결케하라...

자신이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을려면 온전하기가 정말 쉽지않죠.

우리가 스스로 셩결케할 때...하나님앞에 내가 정말 책망 받을 일이 없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일 겁니다.

하나님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이 사람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한 다음에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거죠.

요단강은 그 당시에 강우량이 많은 시기였고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더 물이 많은 그런 상태였죠.

논에 거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거르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어때요?

그런 물이 많은 상태에서 요단강이 끊어지죠.

여호수아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당시에도 우리가 홍해바다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좁은 길이 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 대략 폭이 8킬로였거든요. 8킬로...

그정도 8킬로쯤 되어야지 밤새 사람들이 가서 약 이백만명 이상이 건너는 폭이 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밤새 불게 했잖아요. 건너가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백만명 정도가 건너가려면 폭이 약 8킬로가 되어야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8킬로는 여기서 먼 거에요. 한 양재까지 될까?...

그렇거든요. 그 정도 먼 길을 그 많은 사람이니까...대단한 거리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먼 거리인데...그 많은 사람이 가려면 대단한 거리죠.

마찬가지요. 요단강도 그렇게 꾀 멀거든요. 그러니깐 물이 멀리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한참 굉장히 먼거리에 올라가서 쌓인거에요.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읍 변방이 35킬로 떨어진 변방이라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먼길을 의미하죠.

멀리까지 물이 멈춰 선거에요. 그러니까 그 폭을 지나가게 된거에요.

(24:0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넓이의 물이 멈춰섰으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장관...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떠있는 언약궤라고 되어있는데,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항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고, 백성들은 언약궤에서 약 1킬로미 터정도 떨어져가요. 떨어져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고 구별된 그런것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도 그런 것 들로 보여주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막고 서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막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했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 법궤가 요단강에 서 있으니까 물이 멈춰선거에요.

우리는 그런걸 보고도 안 믿는다면.... 안 믿는게 지옥일거 같아요. 그죠.

그런걸 보고 안믿는다면...

밑에 마른땅을 건너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가운데 마른땅에 굳 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니라"

출애굽사건과 같은 장관이 벌어진거죠.

그러고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 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이런 마음이었을거 같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고는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거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거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 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도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건널 수 있을까요?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건너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려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아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빠져들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계시니이까"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서 건너신다. 함께하셔요.

□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나와 함께하시죠.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는가? 그게 신앙생활일거 같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하셨고,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버지로서 함께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얼마동안이나, 얼마의 시간이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함께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하는거 사랑하는 것들...그런 표현이 우리한테 요구되는거죠.

함께한다는게 우리의 침삼킬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깐 관심이죠. 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 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옛날 그 조용필씨 가수 그분이 해외에 나가서 그러더라구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고...그러면서 무관심이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죠. 자식이 깨어나도 엄마의 시선은 가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은 관심이잖아요. 관심...

관심이라는건 뭐냐면...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그 대상한테 할애하는 거에요.

그게 관심이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하다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데...그 관심의 표현이 뭐냐면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거...줘버리는거잖아요.

그니까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가 맞아요. 관심이 있다면 정맒 사랑한다면 나의 많은 시간을 그분께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연인들, 아니면 신혼부부들 말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나 사랑해? 자기나 얼만큼 생각했어?

물어보잖아요. 하루종일 물어보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관심이 가져지고 나한테 주어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30:36)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듯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을 하느냐? 그게 사랑의 표현인거죠.

젊은 학생이 부모님한테....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부모님한테 그랬데잖아요.

아빠 십일조는 하시면서 시간의 십일조는 안하세요?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십일조도 더 중요할 수 있을거 같아요.

우리가 돈은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더 많이 못 드려요. 소급할 수 없는게 시간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린다는게 그게...사랑의 더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죽을 때까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보면은 그 이면에는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거에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또한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반 아이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런 말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주님의 관심을 갖고 표현을 하는거죠. 내가 바쁘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전화한번 해주고 도와주는거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소괄호 3번에 요단강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것도 참 더구나 생각해보면 장면을 상상해보면 기대해볼 수 있을거 같아요.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되어있는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에요.

그죠. 우리가 방법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그니깐 이것은 그거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이 사실이었다....사실이었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에요.

여호수아 4장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사랑하심과 관심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떡을 떼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회상하는 거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큰 6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예표다라고 되어있어요.

가나안땅은 천국의 그림자이자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

속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광야생활을 거쳐 육신에 것에 억메이는 생활을 격리하고 전진하는 생활에 대한 모습인데 우리는 동시에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지금여기에서 동시에 경험하는 거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백성들이 애굽땅에서 있었던 것이 마귀의 핍박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그러나 구별되었다는거, 구별되었다는 거고...우리의 육신 마음은 성경에 가 있지만 상태는 아직까지 땅에 있다는 거....

그러니깐 이스라엘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애굽생활, 광야생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는 거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그러니까 큰 교훈이 되죠.

(35:26)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볼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것에 대한 처음의 순종은 그 약속하신 땅을 가기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찮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민족이 구체적인 순종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런 순종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에 따라 올바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법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물이 멈췄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요단강은 삶과 죽음의 관계다.

그래서 광야생활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관계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관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세상사람들이 건널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저는 몰랐어요. 구원받기전까지는...

며칠 후 며칠 후 그러길레...알고보니까...."몇일 후 몇일 후"라는 말이었어요. 요 단강 건너 ...

근데 그말 하면서도 의미는 모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역사적인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법궤를 멘 제사장 하나님이 인자하심이잖아요.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는 정도 떨어져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

아이들한테 그런걸 ...

이 공과에서는 저 같아도 그럴거 같아요.

먼저 요단강을 밟았다. 밟을 때 물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다음에 들어갔잖아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더 높은 요구를 하신거거든요.

신앙생활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말을 할 때 이해시키는게 필요하건든요.

염두하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진심으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것처럼 이제껏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님..

저희가 주님을 기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주님의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의 표현이 관심인줄 압니다.

그 관심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형제와 자매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된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